

更多好文盡在「明報網」：www.mingpao.com | 訂閱《明報》請到各大報攤或上網：www.mingpao.com

月刊 同和

統一論壇

북한의 주체사상과 自由·人權문제 梁好民

梁好民

金日成 정권의 어제, 오늘과 統一展望 朴甲東 1992

7
1992

甲東 1992



離散家族 고향방문 어떻게 되나 (北韓의 인간사냥, 납치공작 고발)

政治人言

人物志

卷之二

화제의 人物

李世基 의원/李兌榮변호사/李庚宰신부/奇興聲模型박사

北韓의 인간사냥, 납치공작을 고발한다

독일 유학중 북에 포섭, 대남공작 활동을 하다 자수하여 귀국한

吳吉男씨가 북한이 납치해간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를 털어놓아 남쪽 가족들을 애탓게 했다.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남북관계 이면에 가리워진

남북인사들의 면모와 현주소를 추적한다.

金河景(북한문제전문가)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애는
내 가슴 속에 뿐만 스물
세 살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새 그
때 내 나이와 같은 마흔 여섯이라니…
경회를 잊고 난 지난 23년은 차라리 생
목숨 끊어내는 편이 나을 세월이었어요.』

23년 전인 1969년 12월 19일 강릉을
떠나 서울로 향하다가 납북된 KAL기
(ys-11기)의 여승무원 成敬姬씨의 어머
니 李後德씨(69세)는 오늘도 돋보기를
끼고 「남북의 창」「통일전망대」 등 북
한 소개 TV프로그램을 열심히 들여다본
다. 마흔 여섯 중년으로 변했을 딸의 모
습이건만, 잠시 스쳐 지나 간다 해도 결
코 놓치지 않으리라는 집념으로 말이다.

지난 5월 22일 이후덕씨는 딸이 북한

의 고위 관리와 결혼하여 74년부터 루마
니아 대사 부인으로 지냈으며, 현재 평
양에서 방송국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다
는 소식을 듣고는 23년간 고이 간직해
두었던 딸의 책, 노트, 입던 옷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승무원 제복을 입은 사
진을 떨리는 손으로 어루만지며, 가는
길에 숨을 거두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8
월의 고향방문단에 꼭 끼어야겠다고 다짐
한다.

친정과 시댁이 합남 咸興이고, 친언니
를 고향에 두고온 이산가족이기도 하지만,
딸아이를 보고픈 어미의 恨이 더 간
절했고, 딸이 간첩이 되더라도 내려올
수만 있다면 좋겠다며 입버릇처럼 이야
기하다가 79년 먼저 간 남편 성충경씨의

하다

한

했다.

년부터 루마
여, 현재 평
길하고 있다
고이 간직해
웃을 다시
울 입은 사
지며, 가는
라도 이번 8
겠다고 다짐

고, 친언니
기기도 하지
恨이 더 간
나도 내려울
흔처럼 이야
성충경씨의

한을 풀어야겠다는 다짐에서였다.

남북 당시 성경회씨와 함께 괴롭힌 여승무원 鄭慶淑씨(47세)의 어머니 金錦子 할머니(83세)도 마찬가지였다. 일제 때 관리를 지내 7년간 시베리아로 유형 간 남편 때문에 핍박받다가 6남매중 둘째 아들과 둘째 딸을 남겨두고 월남한 김금자 할머니는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북에 있는 자식을 한번이라도 보고 싶어요. 결혼도 했다는데 자식은 몇이나 되는지, 고생은 안하는지…」하면서 말끝을 잊지 못했다.

확실히 지난 5월 22일 독일 유학 중 북한 공작원에 포섭되어 가족과 함께 입북, 대남 공작활동을 하다가 자수하여 귀환한 吳吉男씨(50세)의 증언은 이 두 어머니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23년」의 한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 주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혈육이 갈라진 이산가족의 아픔을 겪었고, 더욱이 북에 강제억류된 딸을 둔 두 사람의恨은 결코 그 두사람만의 아픔은 아니었다.

6.25때 비공식 집계로 8만 4천 5백명, 가족에 의해 신고된 숫자로 7천 34명이 북한에 강제 남북당했고, 그뒤 오늘날까지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던 어부들, 그리고 해외동포 사회의 유명 인사와 유학생, 심지어 회사원마저 강제 남북 당하여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남북한관계 이면에 가리워진 주요 남북인사들의 면모와 그들의 현주소를 추적해 보기로 한다.

민족의 비극 6.25가 터지면서 이른바

북한의 「모시기 공작」 작전명령으로부터 비롯, 강제남북된 주요 인사들의 면모는 결코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아니다. 저명한 민족주의자, 정치인, 학자, 문인, 예술인, 여류 명사들이기에 여기서 새삼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강제 남북된 臨政요인들의 최후

다만 최근 소련의 변화, 중국의 문호 개방, 그리고 해외동포의 잇따른 북한 방문 등으로 묻혀졌던 역사가 하나 둘 발굴됨에 따라 일반인들에 화제가 되고 때로는 놀라움을 던져주기도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 사망 경위에 대해 여러가지 說이 있던 춘원 李光洙가 江界에서 30km 쯤 떨어진 속칭 「개고개」에서 다리에 심한 동상에 걸려 사경을 헤매다가 당시 북한 부수상이며 이광수와 일본 유학, 상해 독립운동 시절 하숙을 함께 했던 《임꺽정》의 작가 홍명희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았으나 50년 10월 25일 끝내 숨겼음이 드러났다.

당시 북한 내각 문화성 부상이었던 정상진씨는, 춘원은 처음에는 평양감옥에 갇혀 있었으며, 유엔군의 진격으로 평양을 후퇴하게 되자 고당 조만식 선생은 처형하면서 춘원만은 이용가치를 고려하여 살려두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현재 춘원의 묘는 평양시 삼석구역 역원신리의 야산 기슭에 있는 한 일반공동묘지에 독립 유공자이자 2대 국회의원인 元世勳, 초대 심계원장 明濟世, 제현의원 申性均 등과 함께 묻혀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또 남북된 상당수의 임시정부 요인들은 비록 북한측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꼭두각시 노릇을 하긴 했으나 때로는 북한 당국자와 대치하고 협상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과 신조를 견지하며, 公人으로서 민족과 역사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 끈질기게 「제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새롭게 해주고 있다.

북한에서 고위직(정무원 부부장)을 지낸 신경완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출발은 바로 한독당 趙素昂의 구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북한군에 강제 남치되어 4년 가까운 세월을 만포, 평양, 강계 등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방옹모, 김봉준, 유동렬 등을 잊은 임정 요인들이 평양에 자리잡은 것은 휴전 다음 해인 54년 4월이었다. 이때 임정 요인들은 비록 강제로 끌려와 있지만, 어떻게든 제대로 설자리를 찾아 민족 앞에 부끄럽지 않게 生을 마감한다는 결의를 다져 나갔다.

북한당국이 자신들을 어떻게든 회유해서 조직적, 개별적으로 「조국전선」 산하에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선전의 전면에 내세워 자기들의 주장을 대변해주는 정치적 이용물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결론이었다.

이들은 조소앙이 남북 당시부터 구상하면서 다듬어 오다가 후날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의 행동강령에도 반영한

「중립화 통일론」을 분단 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이를 제네바에서 열린 한반도 문제 정치회담에 전달하기 위해 嚴恒燮, 權泰陽 등의 과장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으로 맞섰다.

그 결과 마침내 여행 허가를 받아내 모스크바까지 갔으나 입국사증을 얻지 못했다는 당국의 팽계로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애국민족 세력의 정당, 즉 한독당을 재건하는 노력을 펼쳤다.

때마침 북한도 56년의 노동당 3차대회에서 6개 항의 평화통일선언문을 채택하고 대대적인 정치 선전공세와 평화공세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강제 남북한 임정 요인들과 정치인들을 하나의 조직체에 묶어 동원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리고 56년 7월 2일 남북 인사를 중심의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를 결성하였다. 말하자면 이 단체는 어디까지나 「제 자리」에 서려는 남북 인사들의 노력과 투쟁의 결과인 셈인데, 북한당국은 이를 역이용하기 위해 일시 회유책으로 허용했던 것이었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결성 직후 기존의 「중립화 통일방안」을 다듬어 「5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미국, 중국, 소련 등에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벌였고, 임시정부의 존재와 항일독립투쟁마저 삭제하고 있는 편파적인 역사 서술의 시정을 촉구하는 등 종족세력으로서의 독자적인 위치를 굳힌 나가기 시작했다.

극복의 대안으로
에서 열린 한반
하기 위해 嚴恒
요구했다. 그리
때까지 단식으

허가를 받아내
국시증을 얻지
목적을 이루지
자적인 애국민
당을 재건하는

노동당 3차대
선언문을 채택
공세와 평화공
강제 납북한 임
하나의 조직체
는 결론을 내
인사를 중심의
결성하였다.
마지나 「제 자
의 노력과 투
한당국은 이를
유책으로 허용

는 결성 직후,
을 다듬어 이
을 제시하면서
전달하기 위
정부의 존재와
고 있는 편파적
구하는 등 민
위치를 굳혀

그러나 이 조직의 구심 인물이었던 조
소양이 「독립과 통일의 계단에 나를 바
쳤다고 후세에 전해다오」를 유언으로 생
애를 끝맺고, 또 당국의 계획적인 노동
당 세포 침투, 중앙당 집중지도 이름의
사상 검토 등으로 이 단체는 출범한 지
1년 남짓 지나 그 본래의 결성 목적과
취지인 「애국적 민족세력의 집결체」라
는 존재 의미는 상실되고, 한갓 북한의
유명무실한 대남선전도구로 전락되고 말
았다.

급기야 60년 남한에서 4.19가 일어나
고 이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이 가중
되자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조
국평화통일위원회가 급조됨에 따라 겨우
이름만을 유지하는 명목상의 단체가 되
었다.

현재 이를 납북인사 중 대부분이 노년
으로 사망했거나 소식불명으로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북한은 1970년대
말 만포, 평양 근처 용성 등지의 야산에
묻혀 있던 조봉암, 유동렬, 윤기섭, 조완
구, 유해영, 최동호 등 몇몇 사람의 유해
를 평양시 외곽의 「신미리 애국열사릉」
으로 이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북한 최고의 革命烈士릉보다 한 등급 떨어지는 묘지로서, 북
한 내각 부수상을 지낸 임춘추에서부터
세계탁구선수권 대회에서 두번 우승하여
「체육영웅」으로 각광받았으나 요절한
박영순 등 북한내 각계인사 2백 30여명
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그 중에는 홍명희, 이기영 등 월북인
사를 비롯, 조봉암, 김삼룡 등 남한에서

처형당한 사람들과 지리산 빨치산대장
이현상, 통혁당 사건의 주모자 김종태의
묘소도 마련되어 있다.

노예상인 방불케 한 北의 「인간사냥」

북한의 납치 행각은 6.25 이후 계속되
어 오늘에도 줄곧 계속되고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6.25 이후 최초로 1956
년 10월 2일 강원도 철원에서 미국계 혼
혈아 한 명을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한 이래, 50년대 후반부터
눈에 띠게 늘어난 북한의 납치공작은 주
로 동서해에서 조기, 명태 잡이를 하던
어선과 어부가 주 대상이었다.

69년 10월 29일 강화도 근해에서 어
선 3척, 어부 1백 9명을 납치하는 등 60
년대에도 50여척의 어선과 어부 4백여
명이 강제 피랍당했는데, 현재까지 북한
은 바다에서만 4백 50척의 어선과 3천
6백 36명의 어부를 납치해 갔고, 그중
32척의 어선과 4백여명의 어부들을 아
직도 억류하고 있다.

송환한 어부들에게 예외없이 (1) 김
일성의 위대성 선전, (2) 남북 통일이 될
때까지 김일성을 위해 투쟁할 것, (3) 광
주 사건과 같은 인민 봉기가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결정적인 시기를
조성할 것, (4) 북한에서 학습받은 것을
친구들에게 교육하여 혁명 인사로 육성
할 것, (5) 남파된 간첩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등을 주입시키고 있다.

북한이 어부들을 납치하는 목적에 대
하여 대부분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납

북된 어부들을 통해 남한의 정치, 경제, 군사정보자료와 한국의 해안 연선, 도서 지방에 대한 경제상태와 환경실태 자료 수집, 그리고 남북 어부들에게 간첩 임무를 주어 남한에 새로운 유형의 고첩망을 부식하고 남한 사회에 인위적인 혼란 조성』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물론 부족되는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공장, 농촌에 분산 배치,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음을 자명한 노릇이다.

58년 2월 16일 북한은 국회의원 1명을 포함하여 28명의 승객과 1명의 미국 장교, 그리고 3명의 승무원을 태운 부산

늘어놓아 범죄의 진상을 왜곡하고 비인도적 잔악행위를 가리우고자 했다.

또 승객 39명을 송환한 것은 남한에서 비행기 탑승객이라면 고위관리일 것이라고 예측했던 북한이 남북 승객을 신문한 결과, 대부분이 장사(사업)하는 사람들이었고 개중에는 남의 집에서 일한다는 가정부도 있어서 그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고 판단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억류되어 있는 사람 가운데 조종사 유병하(당시 38세), 부조종사 최석만씨는 평북 구성에 있는 군용 비행장 내

북한이 남지금을 자행하다가 미수에 그친 수많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납치행각은 아프리카 노예상인을 방불케 하는 야만적인 수법. 그리고 닥치는대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인간사냥」 그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발 서울행 KNA 여객기를 공중 납치했다가 세계 여론에 밀려 승객과 승무원을 석방했다. 그리고 69년 12월 11일에는 앞서 언급한 KAL기를 납치했다가 탑승자 51명 가운데 기장과 부조종사, 여승무원 2명과 영동방송국 기자 김봉주(당시 28세)와 PD 황원(33세) 등 11명을 지금껏 억류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공중 하이재킹을 규탄하는 세계의 목소리에 굴복, 69일만에 승객 일부를 송환하면서 두 조종사에 의한 「의거 입북」이라고 주장하고 그 나머지는 「잔류 청원을 허용한다」는 구실을

에서 공군부대 노무가로 비행기 정비공으로 강제노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여승무원인 정경숙, 성경희는 앞서 이야기한대로 대남방송인 「구국의 소리」 방송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들이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이 방송을 남한내에서 방송되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술책에 연유하고 있는데 「구국의 소리」 방송은 북한이 지난 15년 동안 「남한 내의 반정부 동일전선체」라고 주장해온 統革黨을 85년 8월 개칭한 韓民戰 산하 칠보산연락

하고 비인
했다.
은 남한에
관리일 것
승객을 신
겁)하는 사
에서 일한
가치가 별
!으로 분석

|운데 조종
·사 최석만
비행장 내

한국
번역
1리고
다름없

정비공
으로 알려지
는 성경희는
인 「구국의
있음이 확

일하고 있
남한내에서
술책에 연
방송은 북
내의 반정부
抗革黨을 85
칠보산연락

소가 주관하며 방송송신소는 해주에 두고 있는 대남혹색방송이다.

7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은 납치공작의 마수를 해외로까지 펼치기 시작했다. 77년 4월 파리에 살고 있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씨(당시 31세)와 부인 윤정희씨(33세) 및 생후 5개월된 딸 등 일가족 3명을 스위스 부호가 개인적으로 연주회에 초청한다는 구실로 유고 자그레브 교외에 있는 별장으로 유인, 북한으로 납치하였다. 미수에 그친 사건을 필두로, 해외에 살고 있는 유명 인사와 유학생, 심지어 관광객에까지 마수를 뻗쳤다.

79년 7월에는 항공사진학 연수를 위해 네덜란드로 출국, 유럽 관광 중이던 서울 수도여고 자리교사 고상문씨(31세)를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강제납치했고, 이보다 앞서 71년 5월에는 서독 주재 대사관 노무관인 유성근씨(56세) 일가족 4명을, 78년 3월에는 미군에 입대하여 서독에 파견 근무 중이던 교포 병사 정연섭씨(32)를 납치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87년 7월 미국 MIT대학 국제경영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국회의원 李永旭씨의 장남 이재환군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관광여행 중 납치했는데, 북한은 납치극을 자행할 때마다 「한국 사회에 대한 환멸과 북한 사회에 대한 동경 때문에 의거 입북을 했다」며 억지를 무렸다.

이들 가운데 고상문씨는 영화배우 신상옥씨가 납치된 후 제2차 탈출을 기도하다가 수감된 일이 있던 북한 정치보위부 제6교화소에 있을 당시, 간첩죄로 몰

려 수감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전하고 있어 그 생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유성근씨는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한국민족민주전선 산하 칠보산연락소에서 「구국전선」 편집요원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이 납치극을 자행하다가 미수에 그친 수많은 사건까지 포함하면 북한의 납치 행각은 아프리카의 노예상인을 방불케 하는 야만적인 수법, 그리고 닥치는대로 자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인간사냥」 그것과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납치행각을 벌이는 북한의 속셈

북한이 해외에 거주하는 유명인사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납치행각을 벌이는 속셈은 무엇일까.

지난 83년 10월 19일 김정일과 반란최은희씨는 김정일이 직접 자신이 납치를 명령 내렸다고 실로하면서 「낙후된 영화기술의 발전을 위해 공작 조직에 申감독을 끌어 오기 위해 우선 최은희씨 납치를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6.25 당시 남한의 과학자들을 상당수 강제 납북하여 북한 과학기술의 기초를 겨우 마련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사실 북한이 한국 사람들을 납치해 가는 목적은 다양하다.

첫째는 오늘의 한국 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납치해 간 사람들을 세뇌하여 한국에 돌려 보내면, 북한으로서는 필요한 한국의 정세를 시시각각 입

수할 수 있다는 잇점, 그리고 셋째는 남치하여 북한에 충성을 기약하는 사람들 을 늘리면 그만큼 그들이 주장하는 「남조선혁명」의 동조 세력을 늘리는 셈이 되며, 또한 남쪽에 침투하는 간첩·공작 원과의 접촉, 남쪽에서의 혼란을 조장하는 문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서일 것이다.

이는 북한 노동당에 소속된 대남 공작 기관인 한민전 산하 칠보산연락소에 근무하는 인원 가운데 상당수가 남한에서 입북한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즉, 이 연구소는 독일 유학 중 입북한 李彰均(54세)이 고문, 68년 통혁당 주범 김종태와 함께 입북한 이진영(59세)이 부소장으로 있고, 在佛 한인회장을 지내고 프랑스 유학 중 85년경 입북한 허홍식(57), 제주도 출신 남북어부, 68년 동백림 간첩단 사건 관련자 정모씨의 친동생으로 67년 프랑스 유학 중 입북한 정현룡(51세)과 그의 처 한성애(50세) 등 7~8명이 방송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남차행각 대상에서 한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또한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끌게 해주고 있다. 87년 버마 해상에서의 KAL기 폭파범인 김현희가 「북한 초대소에서 恩惠라는 일본 여성으로부터 일본인化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함으로써 일본 언론의 초점이 되기도 했던 북한의 외국인 남차 행각은 이미 88년 미국의 아시아 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 위원회가 괴낸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나

고 있다.

일본인 외에 중국, 프랑스, 레바논인 등 북한에 의해 남치, 억류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는 이 보고서는, 70년대 초 5명의 레바논 여인이 평양에 끌려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여인들과 간첩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78년 남북됐던 최은희, 신상옥씨도 평양의 초대소에서 마카오에서 끌려온 중국인과 요르단 여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본의 시사 주간지 謹君은 지난해 3월 「북한이 남치한 일본인의 이용가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어도 15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남치, 억류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의 일본인 남치 목적으로 세 가지를 지적. 남차행각을 벌이는 북한의 속셈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첫째, 공작원을 교육시키기 위한 교사로 써먹기 위한 것, 둘째 일본인을 남치한 후 그 사람 대신 공작원으로 활동하거나 일본 여권을 만들기 위해서, 셋째 북한이 일본에서 공작활동을 하다 들켰을 경우 증거인멸을 위해 단순남치하는 경우이다.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북한의 일본인 남차 공작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거 북한에서는 일본에서 귀국하여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이 다수 있어 거의 모든 공작원을 이들 중에서 선발할 수 있었으나 근래 이들이 늙었고, 또 북한으로의 귀국자가

· 레바논인
되어 있다고
70년대 초 5
끌려가 프랑
여러 나라에
거 교육을 받
년 남북됐던
초대소에서
· 요르단 여
이를 뒷받

은 지난해
!의 이용가
어도 15명
류되고 있
남치 목적
각을 벌이
가를 분명

위한 교사
인을 남치
로 활동하
어서, 셋째
하다 들켰
남치하는

의 일본인
글 전망이
한에서는
능한 사
원을 이
근래 이
귀국자가

대폭 줄어 金賢姬와 같이 일본어를 초보
에서부터 고도로 깨지 교육시킬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을 불법 남
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2일, 철원에서 북한군 3명
이 휴전선을 넘어 침투하려다가 3명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 남북 간의 기본
합의서 발효와 8.15 고향방문단 교환합
의 등 모처럼 잡혀가고 있는 남북 화해
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또 같은 날 북한의 대남 공작요원으로
활동하가다가 자수하여 귀환한 오길남씨
는 북한이 23년 전 남북한 여승무원 2명
으로 하여금 대남비방 선동의 최첨단 현
장에서 활동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슬
픈 소식을 전했다.

이 두 보도를 접하면서 어떤 사람은
북한의 대남적화 음모가 전혀 변하지 않
았음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은 북한의 무장 도발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도무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 두 사건을 보도하는
주요언간지의 사설에서 화해정신을 짓밟
는 북한을 호되게 나무라거나 정부의 대
북협상에서의 문제점을 지적은 할지언
정, 23년간 강제역류되면서 이젠 가정을
불모로 하여 부모와 형제 등과 떨어져
살아가는 40대 두 중년 여성의 비극을
되새기는 논조가 하나도 없음에 주목
하지 않을 수 없다. 명문과 현실의 괴리
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오늘의 한국
지성인 사회의 현주소를 어디에다 호소
할 것인가. ●

고
자
리
에
서
도
역
시!

오
양
진
이

오징어구이
오징어점보
명태포
오양어포
훈제구이
큰다리오징어
북어채



수산식품의 선구자
—
오양수산(주)